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지현¹ · 김지선²

^{1, 2}광주보건대학교, 조교수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i hyun, Oh¹ · Ji seon, Kim²

^{1, 2}*Gwanju Health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한국간호연구학회지 『별책』 제5권 제4호 2021년 12월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Vol. 5, No. 4, December. 2021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오지현¹ · 김지선²

^{1, 2}광주보건대학교, 조교수

The Influence of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Ji hyun, Oh¹ · Ji seon, Kim²

^{1, 2}Gwanju Health University, Assistant Professor

Abstract

Purpose : This study was to conducted to analyze the effects of emotional intelligence, Grit and communication competence on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Methods :** The participants were 157 nursing students in G city. The study period was from November 6 to November 13, 2020. Data were collected with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data were analyzed with IBM SPSS statistics 21.0 program using t-test, ANOVA, Scheffe, Pearson correlation, and multiple regression. **Results :**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grit,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factors of Communication Competence($\beta = .58, p < .001$) and Motivation for applying nursing : Aptitude($\beta = .16, p = .008$), Motivation for applying nursing : Belief($\beta = .16, p = .008$) had the positive impact on the Major Satisfaction level of nursing students. These factors explained 57.0% of the variance in student major satisfaction. **Conclusion :** Thus, it is necessary to improve nursing students' communication competence should be developed to improve major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Key words : Communication, Emotional intelligence, Grit, Nursing student, Personal satisfaction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간호대학생의 시기는 개인의 사회성과 전문성을 개발하며 간호전문직에 대한 가치관을 확립하는 중요한 시기이다[1]. 하지만, 최근 심각한 취업난으로 간호대학생은 본인의 적성과 선호를 고려하기보다 취업의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간호학과에 입학하거나, 가족이나 타인의 권유에 의해 간호학 전공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2]. 자신의 진로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대학 생활을 시작한 간호대학생은 학업 부적응, 낮은 전공만족도 등으로 인하여 대학생활에도 부정적 경험을 할 수 있지만[3],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전공만족도는 개인이 설정한 진로나 직업에 대한 기준을 현재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학과와 비교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4]. 전공만족도가 낮은 간호대학생은 간호사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의 부족으로 향후 간호사로서의 직업만족과 직업적응능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3], 높은 이직의도를 보이지만[5], 전공만족도가 높은 간호대학생은 간호직에 대한 태도나 가치관에도 긍정적인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4]. 이에 간호대학생의 대학생활 적응과 간호사로서의 직업만족을 돕기 위하여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간호대학생은 임상실습동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충동적인 행동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상황에 따라 적합한 행동으로 나타내고, 스트레스 상황이 주어지더라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처하는 것이 요구된다[6].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고 자신의 감성 정보를 활용하여 주어진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 표현과,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7]. 감성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인지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자신을 분리할

수 있고,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여 자신을 보호할 수 있다[8]. 또한, 감성지능은 유연한 사고와 정서적 압박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전공이론과 임상실습을 통해 임상수행능력을 습득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에게 환자나 의료진과의 효율적인 의사소통 및 대인관계능력을 필요로 하며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고 타인을 이해하기 위하여 감성지능이 필요하다[3].

그릇은 대학생들의 중도탈락률이 높은 시점에서 쉽게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인 노력으로 학업을 지속하게 하고[9],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0]. 그릇이란 지속적인 열정을 뜻하며, 단순히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그 목표를 달성하는 과정에서 직면할 수 있는 실패, 좌절이나 역경 등에도 굴복하지 않는 것이다[11]. 간호대학생은 그릇의 수준이 높을수록 대학생활에 적응을 잘하고[12], 많은 학습량과 잦은 시험, 임상실습의 병행으로 학습에 대한 어려움을 경험하는 간호대학생에게 그릇은 전공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확인되고 있다[13].

의사소통능력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해 효과적인 의사소통 기술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14].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의사소통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반드시 습득해야하는 간호의 전문 기술 중 하나로, 의사소통능력이 높은 간호대학생은 대학생활에서 동료, 임상실습에서 대상자, 간호사와 원활한 관계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또한 Kim은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6].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와 관련된 변인으로 감성지능[2,5], 그릇[13], 의사소통능력[16]등으로 이루어졌으나 감성지능, 그릇, 의사소통능력과의 관계를 본 연구는 없는 상태이며, 대부분 3, 4학년을 연구대상자로 진행된 연구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공과목에 대한 수업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시기인 2학년에 재학중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의

사소통능력, 그릿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함으로써, 이를 근거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시도되었다.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만족도를 파악한다.

둘째, 간호대학생의 일반적인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 대학생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대상

연구대상자는 G시 소재 일개 대학의 간호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자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필요한 대상자 수는 G-power 3.1.9.7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에 필요한 표본수를 산출하였다. 유의수준 .05, 검정력 .90, 효과크기 .15, 예측변수 10개로 하였을 때 필요한 표본 크기는 147명이었으며, 158명에게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설

문지 1부를 제외한 157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3. 연구도구

1) 감성지능(Emotional Intelligence)

감성지능은 Wong & Law[7]가 개발한 감성지능 척도(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WLEIS])를 Jeong 등[17]이 한국어판으로 번안한 감성지능 측정도구(Korean version of the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 K-WLEIS)를 사용하였다.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7점까지 7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감성지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7이었고, K-WLEIS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7이었다.

2) 그릿

그릿은 Duckworth & Quinn[18]이 그릿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한 도구를 Song과 Lim[19]이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신뢰도와 타당도를 검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그릿의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Song과 Lim[1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3이었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54이었다.

3) 의사소통능력

의사소통능력 측정도구는 Hur[20]가 개발한 포괄적 대인 의사소통능력 척도(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y Scale, GICC)를 사용하였다. 총 15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구성된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의사소통능력이 높음을 의미한다. 개발 당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7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3이었다.

4) 전공만족도

전공만족도 측정도구는 Braskamp et al.[21]이 Illinois 대학에서 개발한 Program Evaluation Survey를 Kim과 Ha[22]가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18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음을 말한다. Kim과 Ha[2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α 는 .92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α 는 .96이었다.

4.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2020년 11월 06일부터 11월 13일까지 G시에 소재한 일개 대학교의 간호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료수집 하였다. 자료수집 전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설명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15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지의 URL을 제공하여, 연구대상자가 직접 설문을 작성하도록 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는 연구대상자가 이 연구가 왜 수행되며, 무엇을 수행하는지 이해한 후 연구 참여에 동의할 수 있도록 연구의 목적과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또한 연구 참여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위험 요소는 없으나 개인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본 연구자에게 연락하도록 연락처를 제공하였으며, 연구 참여에 따른 혜택에 대해 안내하였다. 또한 수집된 자료가 학술적인 목적으로만 사용될 것임을 설명한 후 연구 참여 의사를 확인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학생들에 한하여 온라인 설문조사 링크를 전달하여 설문 작성을 하도록 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수집된 자료는 익명으로 처리될 것이며, 개인 정보의 비밀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임을 설명하였다. 만일 법적인 절차에 의한 정보열람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피해자의 비밀보장을 침해하지 않고 관련

규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열람이 허용됨을 안내하였다. 연구 참여는 자유의사이며, 연구에 참여한 후에도 언제든지 연구를 거절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이후 다른 어떠한 불이익도 없음을 공지하였다.

6.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IBM SPSS statistics 21.0 progra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빈도,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를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대상자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정도는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ANOVA, 사후분석은 Scheffe' test를 이용하였고, 대상자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 간의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 대상자 157명 중 여학생이 140명(89.2%), 남학생이 17명(10.8%)으로 여학생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연령은 21세 이하가 92명(58.6%), 22세 이상 26세 이하 33명(21.0%), 27세 이상 32명(20.4%)이었다. 간호학과 지원동기는 ‘취업률이 높아서’ 67명(42.7%)으로 가장 많았으며, ‘적성 고려’ 32명(20.5%), ‘부모나 지인의 권유’ 20명(12.7%), ‘간호학에 대한 신념’ 17명(10.8%), ‘봉사직 선택’ 15명(9.6%), ‘입시성적’ 6명(3.8%) 순으로 나타났다. 동아리 활동을 하는 학생이 34명(21.7%), 종교가 없는 학생은 120명(76.4%)이었다. 학업성적은 3.9~3.0은 111명(70.7%), 2.9~2.0은 24명(15.3%), 4.0이상 18명(11.5%), 2.0미만은 4명(2.5%)이었다. 졸업 후 희망진로는 3차 병원 79

명(50.3%), 2차 병원 36명(22.9%), 간호직 공무원 18명(11.5%), 산업간호사 9명(5.7%), 해외간호사 3명(1.9%) 순이었으며, 기타는 12명(7.6%)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N= 157)

Variables	Categories	N(%)	M±SD
Gender	Female	140(89.2)	
	Male	17(10.8)	
Age(yr)	≤ 21	92(58.6)	24.43±6.61
	22≤X≤26	33(21.0)	
	≥27	32(20.4)	
Motivation for applying nursing	Employment rate	67(42.7)	
	Aptitudes	32(20.4)	
	Others solicitation	20(12.7)	
	Belief	17(10.8)	
	Volunteer job	15(9.6)	
	Admission scores	6(3.8)	
Join a club	Yes	34(21.7)	
	No	123(78.3)	
Religion	None	120(76.4)	
	Protestant	29(18.5)	
	Catholic	6(3.8)	
	Buddhism	2(1.3)	
Grade Point Average	≤1.9	4(2.5)	
	2.0-2.9	24(15.3)	
	3.0-3.9	111(70.7)	
	≥4.0	18(11.5)	
Desired course	University hospital	79(50.3)	
	Secondary hospital	36(22.9)	
	Government employment	18(11.6)	
	Industry nurse	9(5.7)	
	Foreign nurse	3(1.9)	
	Other	12(7.6)	

2. 대상자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 중 평균 4.93점이었고, 그릿은 5점 만점 중 평균 3.30점,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 중 평균 3.87점이었다.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 중 평균 3.96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Degree of Emotional Intelligence, Grit,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N= 157)

Variables	M±SD	Min	Max
Emotional Intelligence	4.93±1.18	2.00	7.00
Grit	3.30±0.57	2.00	5.00
Communication Competence	3.87±0.64	2.00	5.00
Major Satisfaction	3.96±0.64	1.44	5.00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및 전공만족도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감성지능은 연령($F=3.73, p=.026$)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그릿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특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은 연령($F=9.13, p<.001$), 간호학과 지원동기($F=3.15, p=.010$)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scheffe의 사후분석 결과, 21세 이하의 의사소통능력은 27세 이상의 의사소통능력보다 높게 나타났다.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지원동기($F=4.73, p<.001$), 동아리 활동 유무($t=2.41, p=.017$), 학업성적($F=3.19, p=.025$)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간호학에 대한 신념이 있어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입시성적에 따라 간호학과에 지원한 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과 전공만족도 간의 관계

대상자는 전공만족도는 의사소통능력($r=.72, p<.001$), 감성지능($r=.48, p<.001$), 그릿($r=.40, p<.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소통능력과 감성지능($r=.61, p<.001$), 그릿($r=.47, p<.001$)이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그릿은 감성지능($r=.28, p<.0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Table 4).

Table 3. Differences in Emotional intelligence, Grit, Communication Competence, and Major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 = 157)

Variables	Categories	Emotional Intelligence		Grit		Communication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M±SD	t/F(p)	M±SD	t/F(p)	M±SD	t/F(p)	M±SD	t/F(p)
Gender	Female	4.92±1.19	-0.43	3.30±0.58	-0.19	3.90±0.65	1.75	3.98±0.59	0.94
	Male	5.05±1.15	(.669)	3.32±0.52	(.851)	3.61±0.53	(.082)	3.76±0.96	(.362)
Age(yr)	≤ 21	5.14±1.08		3.33±0.56		4.03±0.56 ^a	9.13	4.04±0.55	
	22≤X≤26	4.71±1.22	3.73 (.026)	3.29±0.48	0.38 (.684)	3.76±0.53 ^{ab}	(<.001)	3.80±0.73	1.97 (.147)
	≥27	4.55±1.30		3.22±0.71		3.51±0.80 ^b	a>b	3.88±0.77	
Motivation for applying nursing	Employment rate	4.74±1.18		3.34±0.59		3.71±0.63		3.79±0.63	
	Aptitudes	5.28±1.12		3.35±0.51		4.07±0.47		4.28±0.56	
	Others solicitation	5.36±0.92	2.21 (.056)	3.28±0.53	0.84 (.525)	4.06±0.59	3.15 (.010)	3.83±0.52	4.73 (<.001)
	Belief	5.05±1.40		3.06±0.35		4.15±0.71		4.34±0.59 ^a	a>b
	Volunteer job	4.39±1.28		3.25±0.79		3.62±0.75		3.91±0.73	
Admission scores	4.81±0.65		3.47±0.75		3.76±0.68		3.60±0.65 ^b		
Join a club	Yes	5.16±1.08	1.26 (.211)	3.44±0.63	1.63 (.105)	4.01±0.62	1.42 (.158)	4.19±0.65	2.41 (.017)
	No	4.87±1.20		3.26±0.55		3.83±0.65		3.90±0.63	
Religion	None	4.91±1.18		3.33±0.56		3.88±0.62		3.93±0.59	
	Protestant	4.90±1.28	.36 (.783)	3.17±0.55	1.51 (.214)	3.82±0.74	.08 (.971)	4.05±0.88	.45 (.718)
	Catholic	5.36±0.84		3.53±0.87		3.88±0.80		4.12±0.44	
	Buddhism	5.35±0.05		2.75±0.11		3.93±0.00		3.81±0.28	
Grade Point Average	≤1.9	4.83±2.11		3.17±0.97		3.75±0.87		3.75±0.90	
	2.0-2.9	4.79±1.04	3.16 (.063) [†]	3.37±0.67	0.96 (.414)	3.69±0.69	2.11 (.101)	3.79±0.69	3.19 (.025)
	3.0-3.9	4.84±1.17		3.26±0.52		3.86±0.62		3.94±0.62	
	≥4.0	5.68±1.04		3.48±0.65		4.18±0.61		4.36±0.50	
Desired course	University hospital	5.00±1.31		3.29±0.63		3.99±0.70		4.06±0.64	
	Secondary hospital	4.58±0.98		3.38±0.65		3.76±0.59		3.99±0.59	
	Government employment	5.26±1.03	1.22 (.301)	3.21±0.34	0.59 (.711)	3.80±0.51	1.57 (.172)	3.81±0.50	2.06 (.073)
	Industry nurse	5.31±0.95		3.41±0.37		3.93±0.48		3.94±0.57	
	Foreign nurse	4.94±1.43		2.95±0.39		3.58±0.68		3.16±1.55	
	Other	4.74±1.08		3.30±0.57		3.54±0.53		3.67±0.62	

† Levene의 동질성이 확보되지 않아 이분산 검정
a,b : scheffe's post-Hoc test

Table 4. Correlation among Variables

	Emotional Intelligence	Grit	Communication Competence	Major Satisfaction
	<i>r(p)</i>			
Emotional Intelligence	1	.28(<.001)	.61(<.001)	.48(<.001)
Grit		1	.47(<.001)	.40(<.001)
Communication Competence			1	.72(<.001)
Major Satisfaction				1

5.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요인

대상자의 전공만족도에 대한 간호학과 지원동기, 학업성적, 동아리 활동 유무,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의 영향 정도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다중회귀분석 실시 전 잔차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의 값은 2.03로 2에 가까워 잔차들 간의 자기상관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중 공선성을 검정한 결과 공차한계는 0.46~0.94로 0.1이상이었으며, 분산팽창인자(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는 1.06~2.16로 10이하의 값으로 독립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없었다. 분석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의 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사소통능력($\beta = .58, p < .001$)과 간호학과 지원동기 중 취업률이 높아서에 비해서 적성에 맞아서($\beta = .16, p = .008$)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beta = .16, p = .008$)은 전공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총 설명력은 57%였다($F = 18.25, p < .001$).

IV.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의 정도와 이들 변수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위해 시도되었다.

본 연구 결과 대상자의 감성지능은 7점 만점 중 평균 4.93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 2학년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Chang과 Do[23]의 연구에서의 4.91점과 비슷한 수준이며, 3, 4학년을 대상으로 조사한 Oh와 Lee[24]의 연구에서의 5.27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감성지능은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공감하고 자신의 감성을 조절하여 적절히 행동하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으로 [7] 임상실습에서 다양한 대인관계를 경험하게 되는 간호대학생에게 임상실습이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6]. 따라서 임상실습 중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후속연구가 필요하겠다.

Song과 Chae[8]의 연구에서 감성지능은 성별, 종교, 전공만족도, 학과 외 활동 참여 및 성적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령에 따라 감성지능이 차이를 보였다. 간호학생의 연령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확인하는 연구가 부족하고, 연구 결과가 상이하여 간호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감성지능은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과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자신의 감성을 조절 및 활용하는 능력[7]으로 개인의 특성이 반영되어 연령에 대한 일정한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고 본다. 하지만 연령에 따른 감성지능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반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연령에 따른 감성지능의 차이가

Table 5. Factors Affecting on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Variables	B	S.E	β	t	p
(constant)	1.03	.25		4.09	<.001
Emotional intelligence	.04	.04	.07	.98	.329
Grit	.13	.07	.12	1.90	.060
Communication Competence	.58	.08	.58	7.50	<.001
Motivation for applying nursing : Aptitude [†]	.26	.10	.16	2.67	.008
Motivation for applying nursing : Belief [†]	.33	.12	.16	2.68	.008

$R^2 = .60$, Adj. $R^2 = .57$, $F = 18.25$, $p < .001$, $VIF = 1.06 \sim 2.16$, Durbin-Watson = 2.03

[†]Dummy variables reference-Motivation for applying nursing : Employment rate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겠다.

본 연구 대상자의 그릿은 5점 만점 중 평균 3.30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같은 도구를 사용한 선행연구가 없어 직접 비교와 분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Duckworth & Quinn[18]의 도구를 이용하여 간호학과 전체 학년에게 연구한 Jeong과 Jeong[13]의 연구에서 3.18점, 3, 4학년을 대상으로 한 Lee와 Park[12]의 연구에서 3.31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릿은 자신의 분야에서 탁월한 성취를 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소유하는 성격특성[11]으로 정의되기 때문에 학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선행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높을수록 대학생활 적응이 수월하고[26], 전공만족도가 높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13].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 달성을 위해 지속적인 열정을 가지는 것으로[11], 간호대학생의 경우 학업에 대한 부담감이 크기 때문에[8] 학업을 지속하고, 대학생활 적응을 돕기 위해 그릿을 향상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학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Jeong과 Jeong[13]의 결과와 차이가 있었다. 이는 COVID-19의 확산으로 온라인수업과 절대평가의 비중이 확대되어 학점인플레이 현상이 반영된 결과로 사료된다[25]. 간호학문에서 그릿에 대한 연구는 시작 단계에 있어 일반적 특성에 따른 그릿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후속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의사소통능력은 5점 만점 중 3.87점으로 중간이상의 수준을 나타냈다. 이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Ycom[15]의 3.71점과 Nam과 Kim[26]의 3.98점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여러 사람과의 관계에서 적절한 상호작용을 위해 필요하며[14], 간호대학생에게 있어 의사소통능력은 반드시 습득해야 하는 간호의 전문 기술 중 하나이다[15].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교과목이 개설되어 있는 학교가 많이 있으나, 강의식이 아닌 훈련과 연습으로 이루어진 의사소

통능력 향상 프로그램으로 보완될 필요가 있다. 또한 의사소통능력 향상을 위한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개발을 통해 반복적이고 주체적인 교육이 제공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5점 만점에 3.41점으로,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와 Kim[27]의 3.66점과 전체 학년을 대상으로 한 Jeong과 Jeong[13]의 3.76점과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본의 수와 학년의 상이성으로 단순비교는 어렵지만,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중간수준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간호학과 수요 증가와 높은 취업률로 적성을 고려하여 학과에 진학하는 학생보다 취업을 위하여 진학하는 학생의 수가 증가하고 있고, 이는 전공만족도의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2]. 이는 전공만족도의 감소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들이 전공에 대한 흥미를 가지고 학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 개정 및 새로운 교수학습법 도입 등을 통한 학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 일반적 특성에 따른 전공만족도는 간호학과 지원동기, 동아리 활동 유무와 학점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본 연구결과에서 학점, 동아리 활동 유무, 간호학과 지원동기에 따라 전공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2]에서 간호에 대한 신념으로 지원한 경우가 성적 고려나 취업률을 고려하여 지원한 학생보다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결과 간호학과에 간호학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진학하는 경우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입학성적을 고려해서 지원한 경우에 전공만족도가 낮았기 때문에 이들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진로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본 연구결과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는 감성지능($r=.48, p<.001$), 그릿($r=.40, p<.001$), 의사소통능력($r=.72, p<.001$)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Oh와 Kong[3]은 감성지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감성지능은 훈련이나 교육을 통해 향상될 수 있다고 보고

하고 있으므로[28]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감성지능 향상 프로그램의 도입이 필요하겠다. 간호대학생의 그릿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은 것을 확인하였다[13]. Oh와 Kong[3]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는 대학생활 적응과 관련이 있으며, 추후 간호사로서 직업만족을 높이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그릿에 대한 심도 있는 탐색과 그릿에 대한 교육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Kim[16]은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다고 보고하여 이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였다. 이는 의사소통능력은 간호대학생에게 반드시 필요한 간호의 핵심 역량 중 하나로[15] 다양한 대인관계에 필수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의사소통능력이 높을수록 전공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의사소통능력이 확인되었으며, 이에 대한 설명력은 57.0%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의사소통능력이 전공만족도와 관련이 있다[16]는 선행연구의 결과와 그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교육을 한다면 전공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간호대학생의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대학생의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 전공만족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간호학과 지원동기 중 적성에 맞아서와 간호사에 대한 신념, 의사소통능력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미래에 간호사가 될 간호대학생은 간호전문직에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추려는 노력과 더불어 의사소통능력을 개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을 대상으로 감성지능, 그릿, 의사소통능력이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고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학생지도를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감성지능, 의사소통능력, 그릿은 전공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었고, 의사소통능력은 전공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간호대학생의 전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성이나 간호사에 대한 신념을 고려하여 간호학과에 지원할 수 있도록 격려할 필요가 있으며, 의사소통능력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및 적용하고 의사소통능력 증진이 전공만족도 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연구의 수행을 제언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그릿이 전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으나 국내의 간호대학생에게 적용하기 위해 수정·보완된 도구가 연구목적에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이 도구를 사용하였으나, 신뢰도가 본 연구에서 최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였다. 자료수집 후 신뢰도가 낮아 항목 제거 시 척도분석을 한 결과 .46~.54로 현재의 신뢰도와 비슷하였다. 본 연구는 도구가 수정·보완된 후 처음 사용하는 연구로 자료 수집 이전에 사전조사를 실시하지 못하고 연구를 진행한 것이 신뢰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연구대상과 지역을 확대하고 검사시간을 제한하여 연구할 것을 제언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일개 대학 간호학과 학생을 편의 표본추출 하여 일반화에 한계가 있으므로, 간호대학생 전체로 일반화 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Reference

1. Park HT. A study on the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on adjustment to college life in first year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15(3):1576-1583. DOI : 10.5762/kais.2014.15.3.1576.
2. Kim YS, Oh EJ.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 Cooperation Society. 2016;17(7):103-111. DOI : 10.5762/KAIS.2016.17.7.103
3. Oh EJ, Kong JH. The relationship among emotional Intelligence, Career Attitude Maturity, and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21. 2017;8(3):245-259. DOI : 10.22143/HSS21.8.3.14
 4. Choi HJ. Moderating and mediating effects of nursing professionalism between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life adaptation among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7;18(6):68-77. DOI : 10.5762/KAIS.2017.18.6.68
 5. Cho H, Lee GY. Self esteem and career identity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 Academy of Public Health Nursing. 2006;20(2):163-173.
 6. Lee OS, Gu MO. The relationship between emotional intelligence and communication skill, clinical competence & clinical practice stress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3;14(6):2749-2759. DOI : 10.5762/KAIS.2013.14.6.2749
 7. Wong CS, Law KS. The effects of leader and follower emotional intelligence on performance and attitude : An exploratory study. The Leadership Quarterly. 2002;13(3): 243-274. DOI : 10.1016/S1048-9843(02)00099-1
 8. Song JE, Chae HJ. Differences in stress and stress coping strategies according to emotional intelligen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14;20(4):502-512. DOI : 10.5977/jkasne.2014.20.4.502
 9. Cho NK, Kwon JH, Jung MY.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autonomy, mindset and academic persistence intention with grit.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Korea Youth Research Association. 2017;24:45-69. DOI : 10.21509/KJYS.2017.12.24.12.45
 10. Ha HS, Lim HJ, Hwang MH. The role of grit, goal perception, conscientiousness and resilience in academic adjustment. Korea Journal of Counseling. 2017;18(1):371-388. DOI : 10.15703/kjc.18.1.201702.371
 11.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007;92(6):1087-1101. DOI : 10.1037/0022-3514.92.6.1087.
 12. Lee SJ, Park JY. The effects of grit and stress on nursing student's adjustment to college life.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2018;16(2):269-276. DOI : 10.14400/JDC.2018.16.2.269
 13. Jeong ML, Jeong E. Effects of academic stress, academic self-efficacy and major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 on grit.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8;18(6):414-423. DOI : 10.5392/JKCA.2018.18.06.414
 14. Papa MJ, Daniels TD, Spiker BK. Organizational communication. Perspectives and Trends. Los Angeles, London: SAGE. 2008. DOI : 10.4135/9781483329239
 15. Yeom EY. The Influence of communication competence, nursing professionalism, and emotional Labor on clinical practice stress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n Contents Association. 2017;17(4):320-330. DOI : 10.5392/JKCA.2017.17.04.320
 16. Kim YJ. Influence of major satisfaction, communication skills, image of nurses on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Entertainment Industry Association. 2020;14(8):265-276. DOI : 10.21184/jkeia.2020.12.14.8.265
 17. Jeong HR, Choi HJ, Park MS.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Korean version of Wong and Law emotional intelligence scale(K-WLEIS). Journal of

- Korean Academy of Nursing. 2020;50(4):611-620.
DOI : 10.4040/jkan.20109
18. Duckworth AL, Quinn PD.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short grit scale (Grit-S).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2009;91(2):166-174.
 19. Song HS, Lim SH. Validity and reliability of Korean version of the grit scale for Korea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020;26(3):322-331.
DOI : 10.5977/jkasne.2020.26.3.322
 20. Hur GH. Construction and validation of a global interpersonal communication competence scale.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2003;47(6):380-408.
 21. Braskamp LA, Wise SL, Hengstler DD.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1979;71(4):494-498.
 22. Kim KH, Ha HS.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for Counseling*. 2000;1(1):7-20.
 23. Chang HK, Do YJ. Problem-based learning using digital storytelling: examining nursing students emotional intelligence, critical thinking disposition, clinical competence, and metacognition. *The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2021;21(8):853-866.
 24. Oh EH, Lee S. Effect of emotional intelligence and moral sensitivity on caring efficacy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21;21(8):619-628.
DOI : 10.5392/JKCA.2021.21.08.619
 25. Lee SH. Increasing number of non-face-to-face classes... 87% of 4-year college students 'B grade or higher'. *The Kyunghyang Shinmun*. 2021 April 30; <https://www.khan.co.kr/national/education/article/202104302059005>
 26. Nam HR, Kim MK. Influence of career identity, learning motivation, communication skill on nursing professionalism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Research*. 2021;5(3):25-35. DOI : 10.34089/jknr.2021.5.3.25
 27. Lee MR, Kim MJ. The influences of college adaptation, satisfaction of major and clinical practice on vocational ident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8;19(6):197-208.
 28. Davis FD.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user acceptance of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Information Systems Research Center*. 1989;13(3):319-340. DOI: 10.2307/249008